

SERMON 2 APRIL 2017

Ezekiel 37: 1-14

John 11: 1-45

오늘 우리는 많은 분량의 성경 봉독을 들었습니다. 꽤 긴 시간뿐만 아니라 큰 주제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주제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은 새벽여명은 밝고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클라이브와 저는 발모랄(Balmoral) 바다로 갔습니다. 그곳은 잔잔한 파도가 해변을 감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클라이브는 수영을 했습니다. 저는 바위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조수가 꽤 멀리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위와 곡선들 그리고 갈라진 틈들의 모양의 놀라운 패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시간, 영원 그리고 장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를 항상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파도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파도소리는 저를 가족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친구들, 특히 아이오나 바다 근처에 살고 있는 딸(Rona)와 저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다.

파도와 해류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것들은 바위들을 부수고, 수세기, 수 천년 에 걸쳐 바위들을 계속해서 변형시킵니다. 인류존재의 우리의 역사는 이 행성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특별한 순간은 종종 존재하는 유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아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라는 질문이 우리의 뇌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 같은 다른 질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의 사람들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가느냐 하는 것 입니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는 우리가 보는 사물의 방향을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야기 하는지에 대해 숙고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 인지에 관하여, 그가 무엇을 했는지 듣고 그리고 본 것인, 니고데모,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의 여인, 눈먼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종종 놀랄 만한 변화들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것은 모두 광야에서 예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자,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며 종려주일 전, 우리는 삶과 죽음을 이야기 하는 이상한 시점에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영생을 통해, 우리의 시간과 장소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 하시는 것 인가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에스겔(Ezekiel)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빌론에서 사로잡혀 가던 시기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집, 성전, 조상들의 무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Ezekiel 은 뼈의 계곡이라는 비범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자세한 죽음과 절망의 생생한 묘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주일 학교 아이들이 뼈들이 다시 결합된 이미지와 그리고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매료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뼈들, 뼈들, 마른 뼈들”을 불렀습니다. TV 화면에서 파괴된 이미지들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나요? 고대 건물들의 잔해들 모든 도시들은 파괴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과 죽음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 무덤에 대해 듣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도시들도 파편 더미로 전락했을 때, 여전히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한 살아 있는 기억 속에 남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거대한 나무 들보로 지탱된 건물과 벽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런던의 초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많은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파괴는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테러리즘이 승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서 있는 것처럼 파괴에 저항하는 정신이 또한 드러납니다, 웨스트민스트 다리에서 이슬람교 여성들이 팔에 팔을 낀 채 서 있는 긴 줄로 그들은 계속해서 연명할 것인가, 아니면 파리의 사람들, 니이스, 베이루트, 런던, 카불, 이스탄불, 시드니, 그리고 다른 많은 곳에서 그들은 단지 삶과 사랑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파괴와 죽음 후에도 삶을 믿는지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때로 수세대가 걸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약 400 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였으나,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 건조한 뼈들이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오늘 부활절 행사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으로 성경 봉독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마침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데려오게 행동하는 것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에 의해 유발되었습니다.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에는 그 계기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돈을 빌려주고 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신 것 등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가까이에 제 2장에 이 사건을 둡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아나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성경 봉독으로 읽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스러운 주일에 가까이 가면서, 겐세마네와 골고다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출입구인 돌 무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놀라움 말입니다. 하지만 항상 일어나는 일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말씀에서부터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다른 질문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부터 살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이 형제들에 대한 매우 친밀한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픈 나사로, 예수님의 발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도록 기름을 붓는 마리아(이 이야기는 곧 나올 것 입니다),

그리고 마르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섬기느라 바빴던 마르다 이야기, 마리아는 예수 발에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누가 복음에만 해당이 됩니다. 요한은 이 세 명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는 그가 나중에 그들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 받고 지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곳이었다.

오늘 성경봉독에서 우리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확실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로 향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는지를 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은 당혹스러워하는 제자들을 달래기 위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요점은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큰 감정적인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주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있었더라면, 나의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슬픔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더 악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예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의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그것 역시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굴에 돌문이 있는 무덤으로 인도 됩니다. 잠시 멈추어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에 맴도는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우리 인류에 속에 담고 있는 부활절 이야기 때문일 것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죽음과 부패로부터 생명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바다 해변 옆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회오리 바람의 힘이나, 숲의 불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들을 때, 또는 인간의 멸망의 폐허를 볼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 받지 않는 죽음과 부패한 것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져 올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 밖에서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불신앙을 떨쳐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과 자유를 가져온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겐 강력한 사실에 근거한 은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큰 목소리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사로는 그렇게 합니다.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울 정도로 잘 알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다고 들었습니다, 바리새인 들은 대제사장들과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이 이야기의 인간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집니다. 이 후에, 예수님의 친구들의 믿음과 신앙이 불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디다. 여러분은 도마라는 이름의 제자를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유대를 떠나 예수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직접 뵈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디다.

계속적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한정 될 수 없다는 것과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하시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배우고 있는지 내내 우리가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막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제공하시는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갈증을 풀어 주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더 믿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맴돌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파괴 적인 것과 맹렬함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 언제까지 입니까, 언제까지 말입니까?"하며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삶의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이야기 속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것들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독창성뿐만 아니라 언제나 상실과 슬픔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저는 에스겔과 요한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비전을 충실히 지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충분하시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습니까?